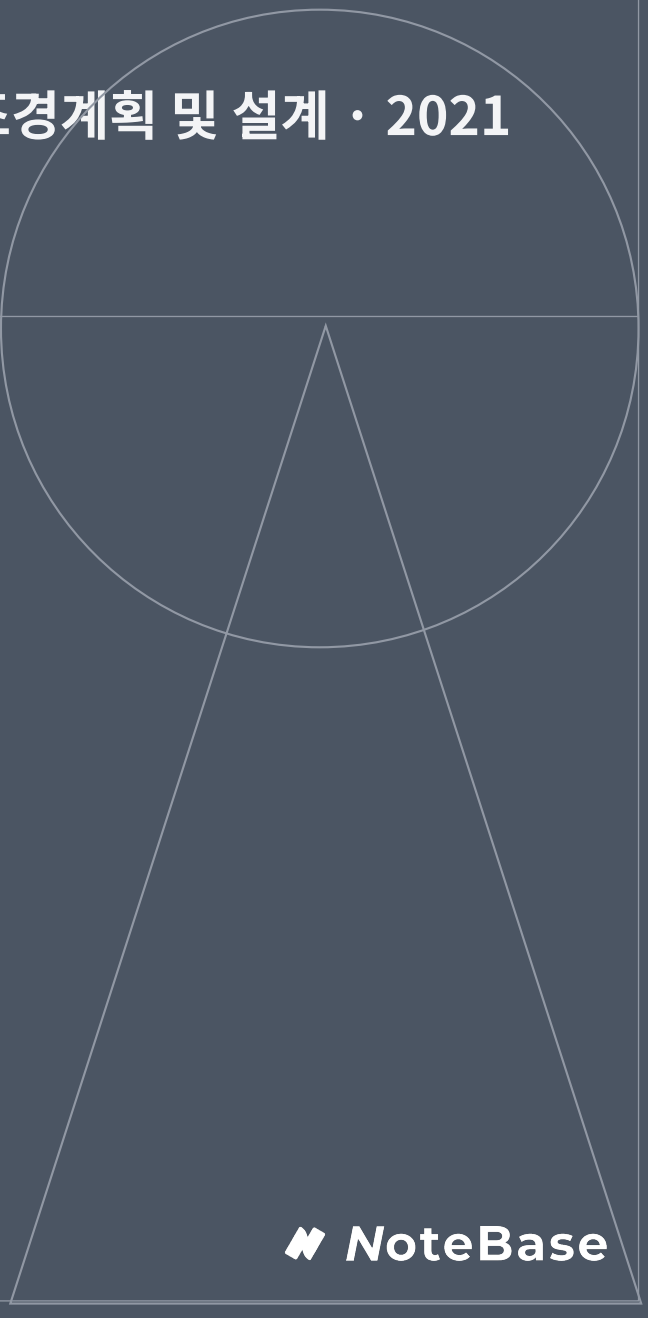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1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1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1**

1. 조경 설계 도면의 수목을 표현할 때 가장 유용한 제도 용구는?
   ① 원형 템플릿(형판)
   ② 자유곡선자
   ③ 운형자
   ④ 스케일(축척자)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조경 설계 평면도에서 수목의 수관을 원형 기호로 빠르고 일정하게 표현하는 데 알맞은 제도 용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형 템플릿(형판)은 여러 지름의 원이 뚫린 제도 용구로, 같은 크기의 원을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그리는 데 사용한다. 수목의 수관은 평면도에서 대체로 원형 기호로 표현하므로 원형 템플릿이 가장 유용하다.
자유곡선자는 손으로 형태를 바꾸어 곡선을 그리는 도구이고, 운형자는 정해진 곡률의 매끄러운 비원형 곡선을 잇는 도구이며, 스케일은 도면의 축척에 따라 길이를 재거나 옮기는 도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원형 템플릿(형판)은 일정한 지름의 원을 신속하고 반복적으로 그릴 수 있으므로 평면도상의 수목 수관 표현에 가장 적합하다.
② X — 틀린 부분은 자유곡선자가 수목 표현에 가장 유용하다는 점이다. 자유곡선자는 원하는 형태로 휘어 불규칙하거나 긴 곡선을 그릴 때 유용하며, 일정한 원형 수관의 반복 표현에는 원형 템플릿이 더 적합하다.
③ X — 틀린 부분은 운형자가 수목 표현에 가장 유용하다는 점이다. 운형자는 여러 곡률의 매끄러운 곡선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며, 원형 수관은 원형 템플릿으로 표현하는 것이 알맞다.
④ X — 틀린 부분은 스케일(축척자)이 수목 표현에 가장 유용하다는 점이다. 스케일은 축척에 맞추어 실제 길이를 재거나 도면에 옮기는 도구이며, 수관의 원형 기호를 그리는 도구는 원형 템플릿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자유곡선자와 운형자도 곡선을 그리는 용구이므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은 단순히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수관을 원형으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며, 이 용도에는 원형 템플릿이 직접 대응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현하려는 형상과 제도 용구의 주된 기능을 연결한다. 반복되는 원은 원형 템플릿, 자유롭게 변형하는 곡선은 자유곡선자, 매끄러운 비원형 곡선은 운형자, 축척 길이의 측정과 전사는 스케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수관은 원, 반복되는 원은 원형 템플릿이다.

NoteBase

2. 도면에 선을 그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 긋는 방향은 수평선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다.
② 선 긋는 방향은 수직선의 경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긋는다.
③ 처음부터 끝나는 부분까지 일정한 힘으로 긋는다.
④ 선의 연결과 교차가 정확하게 되도록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도면에서 선을 그을 때 지켜야 하는 방향, 힘의 균일성, 연결·교차의 정확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도에서 수평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직선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긋는 것이 기본이다. 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힘으로 긋고, 연결점과 교차점이 어긋나거나 지나치게 겹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맞춘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평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는 것이 기본 방향이므로 옳다.
② X — 틀린 표현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이다. 수직선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긋는 것이 올바르다.
③ O — 선의 굵기와 농도가 고르게 나타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힘으로 긋는 것이 옳다.
④ O — 선의 연결점과 교차점은 어긋남이나 불필요한 돌출이 없도록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수평선과 수직선의 방향을 모두 일상적인 필기 습관처럼 생각하면 ②를 맞는 설명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 문제에서는 수평선은 좌→우, 수직선은 아래→위라는 서로 다른 방향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의 종류별 기본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힘의 균일성과 연결·교차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수직선을 위에서 아래로 긋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잘못된 설명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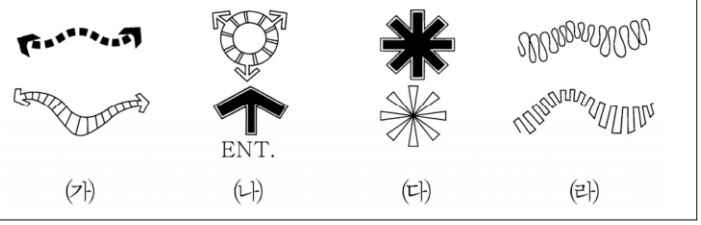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수평선은 좌→우, 수직선은 아래→위, 힘은 일정하게, 연결과 교차는 정확하게 처리한다.

NoteBase

3. <보기>는 개념도에 활용되는 다이어그램 표현 기호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가)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표현 형태이다.
② (나)는 시각적으로 펼쳐지는 방향을 표현한 기호로 조망 범위를 표시한다.
③ (다)는 정원 내에서의 환경 조형물, 요점 식재, 주요 시설물 등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요소의 표현 형태이다.
④ (라)는 동선 기호이며, 선의 넓이로 위계나 이용 횟수 등의 중량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개념도에서 화살표, 진입 표기, 방사형 별표, 반복되는 선형 패턴이 각각 나타내는 공간적 기능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다)의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는 방사형 기호는 시선을 끄는 강조점이나 초점 요소를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굽은 띠에 화살촉이 결합되어 있어 고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형태가 아니라 이동의 흐름과 방향을 나타낸다. 틀린 표현인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표현 형태'는 '동선의 흐름이나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 형태'로 고쳐야 한다.

② X
(나)는 굵은 방향 화살표와 'ENT.'라는 진입 표기가 함께 제시되어 접근·진입과 진행 방향을 나타낸다. 시야가 펼쳐지는 범위나 조망 범위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조망 범위를 표시한다'는 '접근·진입 지점과 진행 방향을 표시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다)의 별 모양과 방사형 선은 주변보다 눈에 띄는 중심점을 만드는 기호이다. 따라서 환경 조형물, 요점 식재, 주요 시설물과 같이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요소를 표현한다.

④ X
(라)는 화살촉 없이 반복되는 물결형·꺾임형 선형 패턴이므로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동선 기호가 아니라 경계·차폐·완충과 같은 선형 요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틀린 표현인 '동선 기호이며, 선의 넓이로 위계나 이용 횟수 등의 중량감을 구별한다'는 '경계나 차폐·완충 등의 선형 요소를 선의 패턴으로 구별한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화살표가 있는 (가)와 'ENT.'가 적힌 (나)를 각각 구조물과 조망 기호로 혼동하기 쉽다. 또한 (라)의 반복 선형 패턴을 단순히 폭이 다른 동선으로 보면 ④를 고르게 된다. 정답을 가르는 단서는 (다)의 중심 집중형 방사 모양이 강조점과 초점을 직접 나타낸다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살촉은 흐름과 방향, 'ENT.'는 진입, 중심에서 퍼지는 별표는 강조점, 화살촉이 없는 반복 선형 패턴은 경계·차폐·완충의 성격으로 판별한다. 기호의 모양만 보지 않고 화살촉과 문자 표기의 유무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화살표는 흐름, ENT.는 진입, 별표는 강조, 반복선은 경계이다.

NoteBase

4. 조경 계획 및 설계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 |
|---|---|
| ㈎ 현황 분석 및 종합 | ㈏ 목표 설정 |
| ㈐ 기본 설계 | ㈑ 기본 계획 |
| ㈒ 기본 구상 | ㈓ 실시 설계 |
| ㈔ 시공 및 감리 | ㈕ 유지 관리 |

①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조경 계획 및 설계가 목표 설정에서 시작하여 조사·계획·설계·시공을 거쳐 유지 관리로 이어지는 전체 절차의 선후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나) 목표 설정 — 사업을 통해 달성할 방향과 목적을 정한다.
2. (가) 현황 분석 및 종합 — 대상지의 자연·인문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계획 조건을 파악한다.
3. (마) 기본 구상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구성과 이용 방향의 큰 틀을 세운다.
4. (라) 기본 계획 — 기본 구상을 구체화하여 토지 이용, 동선, 시설 배치 등의 계획을 정한다.
5. (다) 기본 설계 — 기본 계획을 형태, 규모, 재료 등 설계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6. (바) 실시 설계 — 실제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세부 사항을 작성한다.
7. (사) 시공 및 감리 — 실시 설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한다.
8. (아) 유지 관리 — 완공된 조경 공간의 기능과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왜 이 순서인가: 앞 단계에서 정한 목표와 분석 결과가 구상·계획·설계의 입력이 되고,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야 시공할 수 있으며, 유지 관리는 시공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현황 분석을 목표 설정보다 앞에 두었고, 기본 설계·기본 계획·기본 구상의 순서도 거꾸로 배열하였다. 올바르게는 (나) 목표 설정 → (가) 현황 분석 및 종합 → (마) 기본 구상 → (라) 기본 계획 → (다) 기본 설계 → (바) 실시 설계 → (사) 시공 및 감리 → (아) 유지 관리이다.
② X — 현황 분석을 목표 설정보다 앞에 두었으며, 유지 관리를 시공 및 감리보다 앞에 배치하였다. 올바르게는 (나) → (가) → (마) → (라) → (다) → (바) → (사) → (아)이다.
③ X — 목표 설정과 현황 분석의 시작 순서는 맞지만, 기본 계획을 기본 구상보다 앞에 배치하였다. 올바르게는 현황 분석 다음에 기본 구상을 하고, 이를 기본 계획과 기본 설계로 차례로 구체화한다. 따라서 전체 순서는 (나) → (가) → (마) → (라) → (다) → (바) → (사) → (아)이다.
④ O — 목표 설정 → 현황 분석 및 종합 → 기본 구상 → 기본 계획 → 기본 설계 → 실시 설계 → 시공 및 감리 → 유지 관리의 순서로 정확하게 배열하였다.

### 오답 포인트

기본 구상·기본 계획·기본 설계는 이름이 비슷해 순서를 바꾸기 쉽다. 큰 방향을 잡는 기본 구상이 먼저이고, 이를 계획으로 구체화한 뒤 설계로 표현한다. 또한 유지 관리는 조성된 공간을 관리하는 단계이므로 시공 및 감리 뒤에 온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차형 문항은 목적 설정 → 대상지 파악 → 큰 틀 구상 → 계획 구체화 → 설계 상세화 → 시공 → 사후 관리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특히 구상·계획·설계는 추상적인 단계에서 구체적인 단계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목표 → 현황 → 구상 → 계획 → 기본 설계 → 실시 설계 → 시공 → 유지 관리의 흐름이다.

NoteBase

5.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식재 공간의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교목을 열식 또는 군식하여 수관에 의하여 상부에는 연결된 공간이 만들어지고, 수관 밑으로는 시선이 개방되도록 한 공간이다.

① 개방 공간 ② 위요 공간
③ 관개 공간 ④ 수직 공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교목의 수관이 만드는 상부 경계와 수관 아래의 열린 시선을 근거로 식재 공간의 유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관개 공간은 교목의 수관이 서로 이어져 천장과 같은 상부 경계를 만들고, 줄기 사이와 수관 아래로는 시선이 열리는 공간이다.
개방 공간은 뚜렷한 상부·측면 경계가 약해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이고, 위요 공간은 식재 등의 측면 경계가 공간을 둘러싸는 유형이다. 수직 공간은 높이에 비해 폭이 좁거나 수직적 요소가 강조되어 시선과 공간감이 위쪽으로 향하는 유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개방 공간은 상부나 측면을 한정하는 경계가 약한 공간이다. 보기에는 연결된 수관이 상부 경계를 만들므로 단순한 개방 공간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개방 공간'은 '관개 공간'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위요 공간은 수직적 경계 요소가 공간의 측면을 둘러싸 내부 지향성을 만드는 공간이다. 보기는 수관 아래의 시선이 열려 있으므로 측면이 둘러싸인 위요 공간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위요 공간'은 '관개 공간'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 교목을 열식 또는 군식하여 이어진 수관이 상부를 덮고, 수관 아래로 시선이 열리는 형식은 관개 공간의 핵심 특징과 일치한다.
④ X — 수직 공간은 높은 수직 요소나 좁고 높은 비례로 위쪽 방향성이 강조되는 공간이다. 보기의 결정적 특징은 수직성이 아니라 연결된 수관이 만든 상부 덮개이다. 틀린 표현인 '수직 공간'은 '관개 공간'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수관 아래로 시선이 열린다는 말만 보고 ① 개방 공간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상부에는 수관이 연결되어 분명한 천장면이 형성되므로, 아래쪽의 개방성과 상부의 덮개를 함께 나타내는 ③ 관개 공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식재 공간은 먼저 경계가 형성되는 방향을 확인한다. 수관이 위를 덮고 줄기 사이가 열리면 관개 공간, 측면이 둘러싸이면 위요 공간, 뚜렷한 경계 없이 열리면 개방 공간, 위쪽 방향성이 강조되면 수직 공간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관개 공간은 '위는 수관으로 덮이고, 아래 시선은 열린 공간'이다.

NoteBase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유치거리 제한이 없는 공원은?
① 소공원
② 어린이공원
③ 도보권 근린공원
④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생활권공원의 종류별 유치거리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유치거리 제한이 없는 소공원과 거리 상한이 정해진 어린이공원·근린공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유치거리 = 해당 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권과 공원 사이에 적용되는 거리 기준이다.

**핵심 구분**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소공원의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다. 어린이공원은 250미터 이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500미터 이하, 도보권 근린공원은 1,000미터 이하이다. 따라서 유치거리 제한이 없는 공원은 소공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소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이 없으므로 정답이다.
② X —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 제한이 있으며 250미터 이하이다. 틀린 표현: 유치거리 제한이 없는 어린이공원 → 올바른 표현: 유치거리가 250미터 이하인 어린이공원이다.
③ X — 도보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 제한이 있으며 1,000미터 이하이다. 틀린 표현: 유치거리 제한이 없는 도보권 근린공원 → 올바른 표현: 유치거리가 1,000미터 이하인 도보권 근린공원이다.
④ X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유치거리 제한이 있으며 500미터 이하이다. 틀린 표현: 유치거리 제한이 없는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올바른 표현: 유치거리가 500미터 이하인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다.

**오답 포인트**

공원 이름의 생활권 범위만 보고 소공원에도 짧은 유치거리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함정이다. 소공원은 규모뿐 아니라 유치거리도 제한이 없고, 어린이공원·근린생활권 근린공원·도보권 근린공원에만 250미터·500미터·1,000미터의 거리 상한이 대응한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활권공원의 유치거리는 소공원부터 차례로 제한 없음, 250미터, 500미터, 1,000미터의 대응 관계를 적용해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소공원은 제한 없음, 어린이 250, 근린생활권 500, 도보권 1,000이다.

NoteBase

7. 동선 계획 수립에서 장애인 보행을 위한 질적 향상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애인 유도시설의 경우 점자 블록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보도와 차도의 분리를 명확하게 한다.
③ 보행동선의 유효 폭과 기울기의 경우 보행로의 경계를 색과 재질로 명확하게 구분하며 기울기는 완만해야 한다.
④ 다른 보행로와의 연결 부위는 높이를 다르게 하여 이동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장애인 보행동선은 식별하기 쉽고 안전하며, 단차 없이 연속되도록 계획한다는 원칙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장애인 보행을 위한 동선 계획은 유도성과 안전성, 식별성,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보행로의 경계는 분명하게 인식되도록 하고 기울기는 완만하게 하며, 다른 보행로와 연결되는 지점은 높이 차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장애인 유도시설에는 진행 방향이나 주의 지점을 알리는 점자 블록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동선을 인지할 수 있게 한다.
② O - 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분리하면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 충돌을 줄여 보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③ O - 보행동선의 유효 폭과 기울기를 확보하고, 보행로의 경계를 색과 재질로 구분하면 동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기울기는 휠체어 이용자 등이 이동하기 쉽도록 완만하게 계획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높이를 다르게 하여'이다. 연결 부위의 높이를 다르게 하면 단차가 생겨 이동의 연속성이 끊긴다. 올바르게는 다른 보행로와의 연결 부위는 높이를 같게 하거나 단차가 없도록 하여 이동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결론은 타당해 보이지만, 그 수단인 '높이를 다르게 한다'가 반대이다. 보행동선의 연속성은 높이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차를 없애 확보한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장애인 보행동선 선지는 유도·분리·식별·완만한 기울기·무단차 연결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특히 연결 부위에서 높이 차나 급경사를 만든다는 표현은 이동의 연속성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 암기 포인트

장애인 보행동선은 잘 보이고, 안전하게 분리되며, 완만하고, 단차 없이 이어져야 한다.

NoteBase

8. 수목을 식재기능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차폐 식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징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
② 수형이 단정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③ 지하고가 낮고 지엽이 치밀해야 한다.
④ 지하고가 높은 낙엽 활엽수가 알맞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수목의 식재 기능 가운데 차폐 식재에 알맞은 수형과 가지·잎의 특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차폐 식재는 가리고자 하는 대상이나 시선을 수목으로 막아 공간을 분리하는 식재이다. 지면 가까운 곳부터 빈틈없이 가려야 하므로 가지가 낮은 곳에서 갈라지고 잎과 가지가 치밀한 수목이 적합하다. 상징적 의미는 상징 식재, 단정하고 아름다운 수형은 미관을 위한 경관 식재, 높은 지하고와 넓은 수관은 녹음을 제공하는 식재의 특성과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상징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이는 상징 식재에서 중시하는 특성이며, 차폐 식재에서는 시선을 막는 조밀한 수관과 낮은 가지가 중요하다.
② X — '수형이 단정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이는 미관을 중시하는 경관 식재에 가까우며, 차폐 식재는 외형의 아름다움보다 가지와 잎이 빈틈없이 대상을 가리는 성질이 우선이다.
③ O — 지하고가 낮으면 지면 가까이에서 가지가 나와 아래쪽의 빈 공간을 줄이고, 지엽이 치밀하면 시선과 불필요한 경관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므로 차폐 식재에 알맞다.
④ X — '지하고가 높은 낙엽 활엽수'가 알맞다는 부분이 틀리다. 지하고가 높으면 수관 아래가 트여 차폐 효과가 떨어진다. 높은 지하고와 넓은 수관을 가진 수목은 녹음 제공이나 통행 공간 확보에 적합하고, 차폐 식재에는 지하고가 낮고 지엽이 치밀한 수목이 적합하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도 식재 수목의 바람직한 특성처럼 보이지만 각각 상징성과 미관에 관한 기준이다. 차폐 기능의 핵심은 ③의 '지하고가 낮고 지엽이 치밀하다'이며, ④의 '지하고가 높다'는 아래쪽 시야를 열어 차폐 목적과 반대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식재 기능을 먼저 '무엇을 하려는가'로 바꾸어 판단한다. 차폐는 시선을 막는 것이므로 수관 아래가 트이지 않고 지면 가까이부터 잎과 가지가 촘촘한지를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차폐 식재는 낮은 지하고와 치밀한 지엽이다.

NoteBase

9. <보기>의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조경 설계의 과정은?

<보기>

국내 최초의 도시 국가 공원인 용산공원의 국제 설계 공모 당선안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치유의 공원」이 선정되었다. ㉠ 용산공원을 자연의 치유, 역사의 치유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의 빼어난 자연을 지칭하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인이 자연을 보고, 만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작품에 담고자 했다.

① 공간 디자인
② 대상지 분석
③ 설계 개념화
④ 설계 시각화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시된 문장이 대상지의 조건을 조사하는 단계인지, 설계의 중심 생각을 정하는 단계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상지 분석은 대상지의 자연·인문·사회적 조건과 잠재력 및 제약을 조사·해석하는 과정이다. 설계 개념화는 분석 결과와 설계 목표를 바탕으로 설계 전체를 이끌 핵심 관점, 주제, 의미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공간 디자인은 그 개념을 공간의 배치·형태·동선 등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고, 설계 시각화는 설계안을 도면·모형·투시도 등의 표현 수단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공간 디자인'은 개념을 실제 공간의 구성과 형태로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ㄱ, ㄴ은 구체적인 공간 배치나 형태를 정하지 않고 공원을 바라보는 중심 관점과 의미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설계 개념화'이다.
② X — '대상지 분석'은 대상지의 현황, 잠재력, 제약 조건 등을 조사하고 해석하는 단계이다. ㄱ, ㄴ은 현황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이 아니라 '치유'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설계의 주제와 방향을 정하는 내용이므로, 올바르게는 '설계 개념화'이다.
③ O — '자연의 치유·역사의 치유'라는 관점과 '삼천리 금수강산'의 의미를 설계의 중심 생각으로 삼았으므로 설계 개념화에 해당한다.
④ X — '설계 시각화'는 완성된 설계 생각을 도면, 모형, 투시도 등으로 보이게 표현하는 단계이다. ㄱ, ㄴ에는 그러한 표현 매체가 아니라 설계의 핵심 관점과 의미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올바르게는 '설계 개념화'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자연을 보고, 만나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라는 표현 때문에 대상지 분석이나 공간 디자인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장의 초점은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공간 형식이 아니라 작품 전체를 지배할 주제와 방향을 정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황·조건·문제점을 조사하면 대상지 분석, 핵심 관점·주제·의미를 정하면 설계 개념화, 이를 배치·형태·동선으로 풀면 공간 디자인, 도면·모형 등으로 나타내면 설계 시각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분석은 조건을 읽고, 개념화는 생각을 세우며, 디자인은 공간으로 풀고, 시각화는 눈에 보이게 표현한다.

NoteBase

10. 조경 분야의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Auto Cad – 각종 도면 입력, 편집 및 출력 작업
② Arc Gis – 사진 합성을 통한 스케치 작업
③ Illustrator – 현황 자료 분석 및 종합
④ Photoshop – 각종 문서 작성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조경 분야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컴퓨터 프로그램과 각 프로그램의 주된 용도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utoCAD는 선과 치수를 기반으로 도면을 작성·수정·출력하는 CAD 프로그램이다. ArcGIS는 위치정보를 이용해 공간자료를 구축·분석·표현하는 GIS 프로그램이다. Illustrator는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와 도형을 제작·편집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이다. Photoshop은 픽셀 방식의 사진과 이미지를 보정·합성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AutoCAD는 평면도·단면도 등 각종 도면을 입력하고 편집하며 출력하는 작업에 적합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사진 합성을 통한 스케치 작업'이다. ArcGIS의 주된 용도는 사진 합성 스케치가 아니라 지리·공간정보의 구축, 분석 및 지도화이다. 사진 합성은 주로 Photoshop이 담당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현황 자료 분석 및 종합'이다. Illustrator의 주된 용도는 현황 자료 분석이 아니라 벡터 기반의 도형, 다이어그램, 일러스트 및 프레젠테이션 그래픽 제작이다. 공간 현황 자료의 분석과 종합에는 ArcGIS가 적합하다.
④ X — 틀린 표현은 '각종 문서 작성'이다. Photoshop의 주된 용도는 문서 작성이 아니라 사진·래스터 이미지의 보정, 편집 및 합성이다. 각종 문서 작성에는 워드프로세서나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 적합하다.

**오답 포인트**

프로그램으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대표 기능을 묻는다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②의 '사진 합성'과 ④의 '문서 작성'처럼 일부 기능상 가능해 보이는 표현에 끌리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도면은 AutoCAD, 공간자료 분석과 지도화는 ArcGIS, 벡터 그래픽은 Illustrator, 사진 보정·합성은 Photoshop으로 연결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CAD는 도면, GIS는 공간분석, Illustrator는 벡터, Photoshop은 사진이다.

NoteBase

11. 배식 기법을 정형식과 자연식으로 구분했을 때, 자연식 배식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임의 식재
② 독립 식재
③ 교호 식재
④ 열 식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정형식 배식과 자연식 배식을 구분하는 배열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정형식 배식은 일정한 축·간격·반복 질서에 따라 수목을 규칙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며, 열 식재와 교호 식재가 대표적이다.
자연식 배식은 자연 상태처럼 규칙성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수목을 자유롭게 배치하는 방식이며, 임의 식재가 이에 해당한다.
구별 기준은 수목의 배열에 규칙적인 선·간격·반복이 드러나는지 여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임의 식재는 일정한 열이나 반복 간격을 강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므로 자연식 배식 방법에 해당한다.
② X — 독립 식재는 한 그루 또는 하나의 수목군을 주변과 분리하여 강조하는 식재 형태이다. 틀린 표현은 '독립 식재가 자연식 배식 방법에 해당한다'는 부분이며, 자연식 배식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임의 식재이다.
③ X — 교호 식재는 수목의 위치나 종류를 일정한 순서로 엇갈리게 반복하는 규칙적 배치이다. 틀린 표현은 '교호 식재가 자연식 배식 방법에 해당한다'는 부분이며, 교호 식재는 정형식 배식 방법이다.
④ X — 열 식재는 수목을 직선이나 일정한 열과 간격에 맞추어 배열하는 규칙적 배치이다. 틀린 표현은 '열 식재가 자연식 배식 방법에 해당한다'는 부분이며, 열 식재는 정형식 배식 방법이다.

**오답 포인트**

'독립'이라는 말이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배치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이 함정이다. 독립 식재는 강조 방식에 관한 말이고, 이 문항에서 자연식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배열의 규칙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열·축·일정한 간격·교대 반복이 보이면 정형식, 일정한 배열 규칙 없이 자연스럽게 흩어 배치하면 자연식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자연식은 임의, 정형식은 열·교호이다.

NoteBase

12. 조경 계획과 설계 과정 중 실시 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각 공간의 정확한 규모, 사용 재료, 마감 방법 등을 제시한다.

②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최종 안을 결정한다.

③ 시공이 가능하도록 평면 상세도, 단면 상세도, 시방서 및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한다.

④ 토지 이용 계획, 교통 동선 계획, 시설물 배치 계획, 식재 계획, 하부 구조 계획 등을 세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경 계획·설계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담당하는 성과물과 앞 단계의 업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시설계는 확정된 설계안을 실제로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시공 문서로 작성하는 단계이다. 기본계획·기본설계 단계에서는 대안을 비교하여 최종안을 정하고, 토지 이용·동선·시설물 배치·식재·하부 구조 등의 계획과 공간별 규모·재료·마감 방법을 구체화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각 공간의 정확한 규모, 사용 재료, 마감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은 설계안을 구체화하는 기본설계의 내용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실시설계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기본설계 단계의 설명이다.

② X — 여러 대안을 작성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종안을 결정하는 일은 계획·설계의 앞 단계에서 설계 방향을 정하는 내용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실시설계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대안을 검토하여 기본안을 확정하는 단계의 설명이다.

③ O — 평면 상세도와 단면 상세도,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는 시공자가 설계 의도대로 공사하는 데 필요한 실시설계 성과물이다. '시공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는 표현이 결정적인 근거이다.

④ X — 토지 이용, 교통 동선, 시설물 배치, 식재, 하부 구조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틀린 부분은 이를 실시설계로 본 점이며, 올바르게는 대상지의 공간 구성과 주요 계획을 정하는 기본계획 단계의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도 규모·재료·마감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므로 실시설계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③에는 시공용 상세도면뿐 아니라 시방서와 공사비 내역서까지 명시되어 있어 실제 시공을 위한 최종 문서 작성 단계임이 분명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안 비교와 최종안 결정은 앞 단계, 토지 이용·동선·배치 등의 부문별 계획은 기본계획, 공간별 규모·재료·마감의 구체화는 기본설계로 판단한다. 상세도면·시방서·공사비 내역서처럼 바로 시공에 쓰이는 문서가 나오면 실시설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실시설계는 '상세도면 + 시방서 + 공사비 내역서 = 시공 가능'이다.

NoteBase

13. <보기>가 설명하고 있는 설계도의 종류는?

<보기>

조경 계획도의 내용을 포함하여 부지 내·외의 조건, 도로, 대지의 고저차, 각종 시설의 배치, 범위, 축척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으며 축척도 평면도보다 작아서 대상지의 외부까지 포함한다.

① 입면도 ② 상세도
③ 배치도 ④ 조감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배치도·입면도·상세도·조감도의 표현 목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핵심 단서는 부지 안팎의 조건과 시설 배치를 평면적으로 종합하여 나타낸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배치도는 대지의 경계, 도로, 고저차, 시설의 위치·범위·축척 등 조경 계획의 전반적인 배치 관계를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 형식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평면도보다 작은 축척을 사용하여 대상지 주변까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입면도는 대상을 수직면에 투영하여 높이와 외관을 나타내고, 상세도는 특정 부분의 재료·치수·접합 등 세부 구조를 큰 축척으로 나타내며, 조감도는 높은 곳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본 입체적인 전체 모습을 표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입면도는 대상의 정면이나 측면을 수직면에 투영하여 높이와 외관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틀린 표현은 '입면도'이며, 보기처럼 부지 안팎의 조건과 시설의 위치 관계를 종합해 나타내는 도면은 '배치도'이다.
② X — 상세도는 시공에 필요한 특정 부분의 치수, 재료, 접합 방법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일반 도면보다 큰 축척으로 확대하여 나타내는 도면이다. 틀린 표현은 '상세도'이며, 작은 축척으로 대상지와 주변의 전체 배치를 나타내는 것은 '배치도'이다.
③ O — 배치도는 부지 내·외의 조건, 도로, 대지의 고저차, 각종 시설의 위치·범위·축척 등 조경 계획의 전반적인 배치 관계를 나타낸다. 평면도보다 작은 축척으로 대상지 외부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에도 부합한다.
④ X — 조감도는 높은 시점에서 대상지를 비스듬히 내려다본 입체적 모습을 표현하여 완성 후의 공간감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틀린 표현은 '조감도'이며, 보기처럼 시설의 위치·범위와 주변 조건을 평면적으로 정리한 설계도는 '배치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대상지 외부까지 포함한다’는 표현만 보고 넓은 경관을 보여 주는 조감도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도로, 고저차, 시설의 배치·범위·축척을 종합적으로 표시한다는 문구는 평면적인 위치 관계를 다루는 배치도의 특징이다. 또한 상세도는 작은 축척이 아니라 특정 부분을 확대하는 큰 축척의 도면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부지 전체, 주변 도로, 시설 위치와 범위’가 함께 제시되면 배치도로 판단한다. ‘높이와 외관’은 입면도, ‘부분 확대와 시공 세부’는 상세도, ‘높은 시점의 입체적 전체 모습’은 조감도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배치도는 위치 관계, 입면도는 높이와 외관, 상세도는 부분 확대, 조감도는 입체적 전경이다.

NoteBase

14. 최소 설치 규모가 가장 작은 근린공원은?
① 도보권 근린공원
② 광역권 근린공원
③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④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근린공원의 유형별 최소 설치 규모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이용권역이 넓어질수록 요구되는 최소 면적이 커진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최소 설치 규모는 해당 유형의 공원을 설치할 때 확보해야 하는 법정 최소 면적이다.

**핵심 구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 3에 따르면 근린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는 근린생활권근린공원 1만 m^2, 도보권근린공원 3만 m^2,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10만 m^2, 광역권근린공원 100만 m^2 이상이다. 따라서 최소 설치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도보권 근린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는 3만 m^2 이상이므로 가장 작지 않다.
틀린 판단: 도보권 근린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가 가장 작다.
올바른 표현: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가 가장 작다.

② X
광역권 근린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는 100만 m^2 이상으로 네 유형 중 가장 크다.
틀린 판단: 광역권 근린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가 가장 작다.
올바른 표현: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가 가장 작다.

③ X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는 10만 m^2 이상이므로 가장 작지 않다.
틀린 판단: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가 가장 작다.
올바른 표현: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가 가장 작다.

④ O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최소 설치 규모는 1만 m^2 이상으로 네 유형 중 가장 작다.

### 오답 포인트

근린생활권과 도보권을 비슷한 생활권 공원으로 보고 최소 면적을 혼동하기 쉽다. 도보권보다 이용 범위가 좁은 근린생활권의 최소 면적이 더 작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린공원은 이용권역의 범위를 근린생활권 → 도보권 → 도시지역권 → 광역권 순으로 배열하고, 최소 면적이 1만 m^2 → 3만 m^2 → 10만 m^2 → 100만 m^2로 커진다고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근린공원 최소 면적은 근·도·도·광 순서로 1만·3만·10만·100만이다.

NoteBase

15. 부지 정지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식생지역의 경우 2% 이상 10% 이하의 구배를 갖도록 조절한다.
② 신체장애인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 구배는 난간이 없는 경우 최대 10% 이내로 제한한다.
③ 물이 고이거나 저습지가 생기지 않도록 잔디밭은 최소 1%의 구배를 주어야 한다.
④ 건물이나 구조물 기초의 손상과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지 위의 표면수는 배수처리 되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부지 정지에서 식생지·잔디밭·휠체어 경사로에 적용하는 구배와 건물 주변 표면수 배수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부지 정지는 대상지의 높이와 경사를 조정하여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표면수가 고이지 않게 배수하며, 식생과 건물을 보호하는 계획이다. 일반 식생지의 배수 구배와 휠체어 통행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의 구배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식생지역은 배수가 되면서도 지나친 침식이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2% 이상 10% 이하의 구배로 조정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난간이 없는 경우 최대 10% 이내'이다. 휠체어용 경사로의 일반적인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 즉 약 8.3% 이하이지만, 기울기가 20분의 1, 즉 5%를 초과하면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5% 이내여야 하므로 10% 이내라는 설명은 틀리다.
③ O — 잔디밭에는 물 고임과 저습지 발생을 막기 위한 최소 배수 구배가 필요하며, 최소 1%의 구배를 두는 설명은 옳다.
④ O — 건물 쪽으로 표면수가 모이면 기초가 손상되거나 습기가 침투할 수 있으므로, 대상지의 표면수는 건물에서 바깥쪽으로 빠지도록 배수 처리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식생지역 상한인 10%를 ②의 휠체어 경사로에도 적용하는 것이 함정이다. 식생지의 배수·침식 관리 구배와 무장애 보행을 위한 경사로 구배는 목적이 다르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대상이 식생지, 잔디밭, 휠체어 경사로, 건물 주변 중 무엇인지 구분한다. 식생지와 잔디밭은 배수와 침식을, 휠체어 경사로는 통행 안전성을, 건물 주변은 기초 반대 방향으로의 표면수 배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식생지는 2~10%, 잔디밭은 최소 1%, 휠체어 경사로는 약 8.3% 이하, 건물 주변 물은 바깥쪽으로 배수한다.

NoteBase

16. <보기 1>의 건물과 관련된 식재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가) (나) (다)

<보기 2>

ㄱ. (가)는 시각적 초점 식재 형식을 표현한 것이다.
ㄴ. (나)는 가리기 식재로, 가려야 할 부분을 적절히 가려줌으로써 건물의 전체적인 외관을 향상시키는 식재형식이다.
ㄷ. (다)는 자연경관이 우세한 지역에 건물과 주변경관을 융화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식재형식을 표현한 것이다.
ㄹ. (다)는 모서리식재를 표현한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건물 주변 수목의 위치와 기능을 보고 식재 형식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가)는 건물 앞의 특정 지점에 시선을 모으는 시각적 초점 식재, (나)는 건물 뒤쪽 수목을 활용하는 배경식재, (다)는 건물과 주변 자연경관을 어울리게 하는 조화식재를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다. (나)의 수목은 건물 뒤에서 배경을 이루므로 가리기 식재가 아니라 배경식재이다. 따라서 'ㄱ, ㄴ'이 아니라 'ㄱ, ㄷ'이 옳다.
② O — ㄱ과 ㄷ이 모두 옳다. (가)는 시선을 한곳으로 유도하는 시각적 초점 식재이고, (다)는 자연경관이 우세한 곳에서 건물과 주변 경관을 조화시키는 식재이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ㄴ은 옳지 않다. (나)는 가려야 할 건물 부분을 전면 수목으로 차폐하는 가리기 식재가 아니라, 건물 뒤의 수목이 외관의 배경을 형성하는 배경식재이다. 따라서 'ㄴ, ㄷ'이 아니라 'ㄱ, ㄷ'이 옳다.
④ X — ㄷ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다. (다)는 건물 모서리를 수목으로 완화하는 모서리식재가 아니라, 건물과 주변 자연경관을 융화시키는 조화식재이다. 따라서 'ㄷ, ㄹ'이 아니라 'ㄱ, ㄷ'이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나)의 수목이 건물과 겹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가리기 식재로 판단하거나, (다)의 양 끝 수목만 보고 모서리식재로 판단하기 쉽다. 수목의 단순한 위치보다 식재가 수행하는 기능을 보아야 한다. (나)는 건물 뒤의 배경 형성, (다)는 건물과 자연경관의 전체적인 융화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건물 앞의 한 지점으로 시선을 끌면 시각적 초점 식재, 건물 뒤에서 윤곽과 외관을 받쳐 주면 배경식재, 건물 전체를 주변 자연경관에 녹아들게 하면 조화식재로 판단한다. 건물의 불필요한 부분을 실제로 차폐할 때는 가리기 식재, 모서리를 부드럽게 연결할 때는 모서리식재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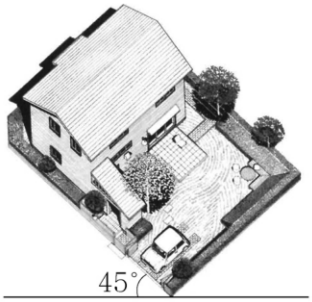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앞에서 시선을 모으면 초점, 뒤에서 받치면 배경, 주변 자연에 녹이면 조화이다.

NoteBase

17. <보기>의 3차원 표현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① 눈높이에서 보이는 공간을 표현한 스케치이다.
② 평면도를 그대로 입체로 표현한 정사형 투시도이다.
③ 설계안의 완공 모습을 공중에서 내려다 본 조감도이다.
④ 설계안이 완공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설계 내용을 나타낸 1점 투시도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평면의 평행 관계와 치수를 유지한 채 수직 방향을 세워 입체적으로 나타낸 정사형 투시도의 특징을 그림에서 판별하는 문제이다. 그림에서는 평행선이 소실점으로 모이지 않고 평면 형태가 일정한 방향으로 세워져 표현되어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눈높이에서 실제로 보이는 공간감을 표현한 스케치는 일반적인 투시도에 가깝다. 이 그림은 평행선이 소실점으로 모이지 않는 정사형 투시도이므로, 올바르게는 '평면도를 일정한 투영 방향으로 세워 입체적으로 표현한 도면이다'라고 해야 한다.

② O
평면도의 평행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직 높이를 부여해 입체로 나타낸 정사형 투시도에 해당한다. 그림의 평행선이 소실점으로 수렴하지 않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③ X
공중에서 내려다본 설계안의 완공 모습을 실제 경관처럼 표현하는 것은 조감도이다. 이 그림은 사실적인 완공 경관을 묘사한 조감도가 아니라 평면도를 기초로 구성한 정사형 투시도이므로, 올바르게는 '평면도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정사형 투시도이다'라고 해야 한다.

④ X
1점 투시도는 깊이 방향의 평행선이 하나의 소실점으로 모여야 한다. 이 그림에는 그러한 수렴이 없으므로, 올바르게는 '설계안의 완공 시점을 가정한 1점 투시도'가 아니라 '평행 관계를 유지해 표현한 정사형 투시도'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그림을 위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본다는 이유만으로 조감도로 판단하거나,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1점 투시도로 판단하기 쉽다. 정답을 가르는 단서는 시점의 높이가 아니라 평행선의 수렴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깊이 방향의 선이 소실점으로 모이는지를 먼저 본다. 선이 한 점으로 모이면 1점 투시도이고, 평행 관계를 유지한 채 평면을 세워 입체화했으면 정사형 투시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정사형 투시도는 평행선은 평행하게, 평면에는 높이를 더해 표현한다.

NoteBase

18.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

㈏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 ㈎ | ㈏ |
|---|---|---|
| ① | 소공원 | 근린공원 |
| ② | 근린공원 | 소공원 |
| ③ | 체육공원 | 어린이공원 |
| ④ | 어린이공원 | 수변공원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도시공원을 설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하고, 각 공원 유형을 알맞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이며,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이 해당한다.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며, 이 문항의 선지 중에서는 수변공원과 체육공원이 해당한다.
따라서 (가)에는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이, (나)에는 수변공원·체육공원이 들어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소공원은 생활권공원이므로 (가)는 맞지만, 근린공원도 생활권공원이므로 (나)는 틀리다. 틀린 표현은 '(나) 근린공원'이며, 올바르게는 근린공원을 (가)에 분류한다.
② X — 근린공원은 생활권공원이므로 (가)는 맞지만, 소공원도 생활권공원이므로 (나)는 틀리다. 틀린 표현은 '(나) 소공원'이며, 올바르게는 소공원을 (가)에 분류한다.
③ X — 체육공원은 다양한 목적을 위한 주제공원이므로 (가)에 해당하지 않고, 어린이공원은 생활권공원이므로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체육공원을 (나), 어린이공원을 (가)에 분류한다.
④ O — 어린이공원은 생활권공원이므로 (가)에 해당하고, 수변공원은 수변공간을 활용해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주제공원이므로 (나)에 해당한다. 두 분류가 모두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소공원과 근린공원은 이름이 서로 달라도 모두 생활권공원이다. ①과 ②는 (가)가 맞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 쉽지만, 짝짓기 문항은 (가)와 (나)가 모두 맞아야 한다. ③은 체육공원과 어린이공원의 분류를 서로 뒤바꾸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을 생활권공원의 세 유형으로 묶는다. 그 밖에 특정한 역사·문화·수변·체육 등의 목적이 드러나는 공원은 주제공원으로 판단한 뒤, 짝의 두 항목을 각각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생활권공원은 '소·어·근', 수변공원과 체육공원은 주제공원이다.

NoteBase

19.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공간과 시설물 계획 시 주변에 대한 가시범위를 최대화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관찰하고 이웃 주민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구분함으로써 범죄와 불안감을 저감하는 원리이다.

① 접근통제 ② 자연감시
③ 영역성 강화 ④ 활동의 활성화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기본 원리 가운데 자연감시를 다른 원리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감시는 공간과 시설물을 계획할 때 가시범위를 넓혀 일상적인 시선으로 주변과 외부인의 행동을 쉽게 관찰하게 하는 원리이다.
접근통제는 출입구, 동선, 울타리, 조경 등을 이용해 사람의 출입을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원리이다.
영역성 강화는 공간의 경계와 소유·관리 주체를 분명히 하여 이용자의 영역 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원리이다.
활동의 활성화는 합법적인 활동과 이용자를 공간에 끌어들여 장소의 이용과 자연스러운 감시 기회를 늘리는 원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접근통제'는 출입과 동선을 유도·제한하는 원리이므로, 가시범위를 최대화하여 주변과 외부인의 행동을 관찰한다는 제시문의 설명과 다르다. 틀린 표현 '접근통제'는 '자연감시'로 고쳐야 한다.
② O — '자연감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피고 낯선 사람의 활동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야와 관찰 가능성을 확보하는 원리이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③ X — '영역성 강화'는 공간의 경계와 소유·관리 의식을 분명히 하는 원리이므로, 가시범위 확대와 일상적 관찰을 설명한 제시문과 다르다. 틀린 표현 '영역성 강화'는 '자연감시'로 고쳐야 한다.
④ X — '활동의 활성화'는 합법적인 활동과 이용자를 유도하여 공간 이용과 감시 기회를 늘리는 원리이므로, 가시범위 자체를 최대화하는 제시문의 직접적인 설명과 다르다. 틀린 표현 '활동의 활성화'는 '자연감시'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제시문의 '범죄와 불안감 저감'이라는 목적은 모든 CPTED 원리에 공통될 수 있다. 정답은 목적이 아니라 '가시범위 최대화', '주변 관찰', '낯선 사람의 활동 구분'이라는 수단에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야·관찰·보임은 자연감시, 출입·동선의 유도와 제한은 접근통제, 경계·소유 의식은 영역성 강화, 합법적 이용과 활동 유도는 활동의 활성화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보이면 자연감시, 막고 이끌면 접근통제, 내 공간임을 드러내면 영역성 강화, 사람이 모여 쓰게 하면 활동의 활성화이다.

NoteBase

20. 조경 식재 재료의 기본적인 규격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랑꽃창포는 분얼의 수를 표시한다.
② 눈주목은 '수고(H)×지하고(BH)'로 표시한다.
③ 등나무는 '수고(H)×근원직경(R)'으로 표시한다.
④ 단풍나무는 '수고(H)×근원직경(R)'으로 표시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경 식재 재료의 종류에 따라 어떤 생육 치수나 수량으로 규격을 표시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고 *H*는 지표면에서 수목의 정상부까지의 높이, 수관폭 *W*는 가지와 잎이 이루는 수관의 폭, 지하고 *BH*는 지표면에서 가장 아래쪽 가지가 붙은 지점까지의 높이, 근원직경 *R*은 지표면 가까운 줄기 밑동의 직경이다. 관목은 뚜렷한 단일 줄기보다 전체 수형의 크기가 중요하므로 보통 수고와 수관폭을 함께 표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노랑꽃창포는 여러 싹이 포기 형태로 자라는 초화류이므로 포기의 충실도를 나타내는 분얼의 수로 규격을 표시할 수 있다.

② X — 눈주목은 낮게 퍼지는 관목이므로 수고 *H*와 수관폭 *W*으로 전체 크기를 표시하는 것이 기본이다. 틀린 표현은 '지하고 *BH*'이며, 올바르게는 '수고 *H* × 수관폭 *W*'이다.

③ O — 등나무는 덩굴성 목본이지만 줄기의 굵기가 식재 재료의 규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고 *H* × 근원직경 *R*'으로 표시한다.

④ O — 단풍나무와 같은 낙엽 활엽 교목은 수고와 줄기 밑동의 굵기를 함께 확인하므로 '수고 *H* × 근원직경 *R*'으로 표시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지하고'는 수고와 마찬가지로 높이를 나타내므로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낮게 가지가 퍼지는 눈주목의 전체 크기를 대표하지 못한다. 눈주목에서는 지하고가 아니라 수관폭을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식재 재료의 생육 형태를 먼저 구분한다. 포기형 초화류는 분얼수, 낮게 퍼지는 관목은 수고와 수관폭, 줄기의 굵기가 중요한 목본은 수고와 근원직경의 조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눈주목은 낮게 퍼지는 관목이므로 $H \times W$이고, $H \times BH$가 아니다.

NoteBase